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  
전기로 직원들의 만남

발을 맞춰 달리다  
우리 회사 콤비 파트너

꿈을 향해 달리다  
Special Column

열정으로 달리다  
우리회사 자기개발 왕

04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 전기로 직원들의 만남
08 Best Partners	SIMPAC메탈로이와 엔아이테크㈜
12 발을 맞춰 달리다	우리 회사 콤비 파트너
16 꿈을 향해 달리다	Special Column
20 열정으로 달리다	우리 회사 자기개발 왕
25 With Us 01	SIMPAC메탈로이 직원 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28 With Us 02	SIMPAC 생산팀 직원들의 야구장 나들이
32 With Us 03	SIMPAC메탈 가든파티
36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38 SIMPAC's Diary	SIMPAC메탈 워크샵
42 SIMPAC NEWS	SIMPAC 소식
43 다른그림찾기	

SIMPAC STORY 2013년 SUMMER | 통권 23호 | 발행인 최진식 | 발행일 2013년 8월 26일 | 발행처 (주)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심팩빌딩 13층 | 기획 (주)리큐더스 02-6011-2000 | 편집 및 디자인 (주)리큐더스 02-6011-2000 | 인쇄 삼진피앤씨

**사보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주SIMPAC홀딩스 정제린 대리 032-590-2020 jljung@simpac.co.kr  
 주SIMPAC 김학중 대리 032-510-0033 hjkim@simpac.co.kr  
 주SIMPAC 메탈로이 선광규 054-271-8724 kgsun@simpac.co.kr  
 주SIMPAC 메탈 강승삼 041-360-0124 sskang@simpac.co.kr

발을 뗀 뒤, 열정으로,  
꿈을 향해

달리다

SIMPAC과, 가족을 위해, 다 같이  
세상으로,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도착해야 할 자신만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던 과거의 나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끝에 무엇이 있든, 성공이나 사랑, 명예 혹은 행복이라는 깃발을 꽂아 놓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달릴 때의 에너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성과는 계획을 행동에 옮겨 실현해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설사 중도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길을 들었다 하더라도 금세 'back on track'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짧은 시간 속도를 높이고 끝나는 단거리 주자가 아닌 많은 언덕과 커브길을 경험하게 될 인생의 장거리 주자들입니다.



SIMPAC메탈로이 & SIMPAC메탈 전기로 직원들의 만남

“한 마음 한 뜻으로,  
최고의 제품생산 해내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20일 정오에 도착한 충남 당진 SIMPAC메탈 사옥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후덥지근한 열기 속에서도 공장 안팎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차분했다. 카페처럼 조용하고 쾌적한 로비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마침 이날 SIMPAC메탈의 시설 견학 차, 멀리 포항에서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이 방문했다. 두 회사 전기로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자.

숨이 턱턱 막힐 듯한 이른 무더위에 지칠 법도 한데, 한 자리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더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열기 가득한 작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다. 이날 SIMPAC메탈에서 전기로 A조 남호문 반장과 김병찬 조장, 이기수 사원이, SIMPAC메탈로이에서는 전기로 D조 김영문 주임과 황상용 선임, 김재중 사원이 참석했다. 각각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에서 합금철 생산이라는 공통 업무를 맡고 있기에 개선해야 할 점이나 배울 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둥근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6명의 SIMPAC인들의 격의 없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SIMPAC메탈은 SIMPAC메탈로이의 자회사이기에 SIMPAC메탈로이에서 근무하다가 SIMPAC메탈 당진 공장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한다. 이날도 SIMPAC메탈로이에서 근무하다가 SIMPAC메탈로 온 직원 2명이 자리했다. 포항과 당진 현장을 모두 경험해 본 이들이 느낀 두 곳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 전통과 연륜을 갖춘 SIMPAC메탈로이와 최신 설비의 SIMPAC메탈이 서로 시너지효과 낼 것

**남호문 반장** : SIMPAC메탈로이에서 17년 가장 근무하던 중 2011년 당진 공장이 지어질 당시 공사현장에 와서 도와주다가 같은 해 8월부터 SIMPAC메탈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SIMPAC메탈로이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다면 SIMPAC메탈은 지은 지 얼마 안 돼 시설이 좋고 근무 환경이 깨끗하며 연령층이 젊어 활기가 넘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설비를 갖추다 보니 좀더 안정된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있겠네요. 이렇게 각자가 가진 장점들로 서로를 보완하며 협력을 계속해나가면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병찬 조장** : 저는 2011년 11월에 발령받아 SIMPAC메탈에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자원하게 되었는데, SIMPAC메탈로이에서 10년을 근무하다 이곳에 와보니 남호문 반장님 말씀처럼 두 회사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SIMPAC메탈의 자랑을 해보자면 작업환경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김재중 사원** : SIMPAC메탈로이의 경우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 직원들이 일하는 데 좋은 환경이라고 자부합니다. 통근차량 운행, 냉난방 시설 가동, 또 더울 때면 시원한 음료수가 무한 제공되는 등 작은 것이지만 직원들을 배려하는 근무 환경에 있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도 절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SIMPAC메탈로이 직원 5명이 업무 차 SIMPAC메탈을 방문해 공장 설비 등을 둘러보았다.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D조 김영문 주임과 황상용 선임, 김재중 사원은 견학을 마치고 난 소감을 풀어 놓았다.

### 견학 계기로 SIMPAC메탈로이가 개선할 점 찾고, SIMPAC메탈의 좋은 점 벤치마킹 할 것

**김영문 주임** : 당진 공장이 완공된 후, 제대로 된 견학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업무 차 견학이라 큰 기대를 걸고 아침 7시에 포항에서 출발해 전속력으로 달려 왔습니다. SIMPAC메탈로이가 35년 된 설비를 쓰고 있는 반면 SIMPAC메탈에는 최신 설비가 들어서 있어 다른 점을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SIMPAC메탈로이도 이런 첨단 설비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SIMPAC메탈은 공장 터나 전체 부지가 커서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회사 주변도 녹지 환경이라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SIMPAC메탈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작업 여건을 맞추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재중 사원** : 당진 공장의 멋진 시설들을 보고나니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이 국내 최강의 합금철 전문회사로 올라서는데 저도 힘닿는 데까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SIMPAC메탈로이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상용 선임** : SIMPAC메탈로이에 앞으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작업 현장의 환경과 설비 등 모든 면에서 SIMPAC메탈처럼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SIMPAC메탈로이와 SIMPAC메탈 두 회사가 한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협력해 나간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현장 작업하는 이들의 노고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SIMPAC메탈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호문 반장** : 회사 생활은 포항이나 여기나 동료들과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게 불편하네요. 지금은 저만 당진에 나와 혼자 살고 있는데, 마치 젊었을 때 자취하던 기분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졸업하면 가족 모두 당진으로 이사 올 예정입니다.

**김병찬 조장** : 저 역시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근무할 때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곳에는 직장 동료들만 있네요. 어떻게 보면 동료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수 사원** : 저는 신입사원이라 아직 업무를 익히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에 애로사항보다는 희망사항이 더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15년, 20년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선배들이 제 미래의 롤 모델인 셈이죠. 무엇이든 더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집도 사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포항과 당진, 각각의 합금철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만남은 짧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된 듯 하다. 끝으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 통해 더 나은 작업환경과 품질개선 이룰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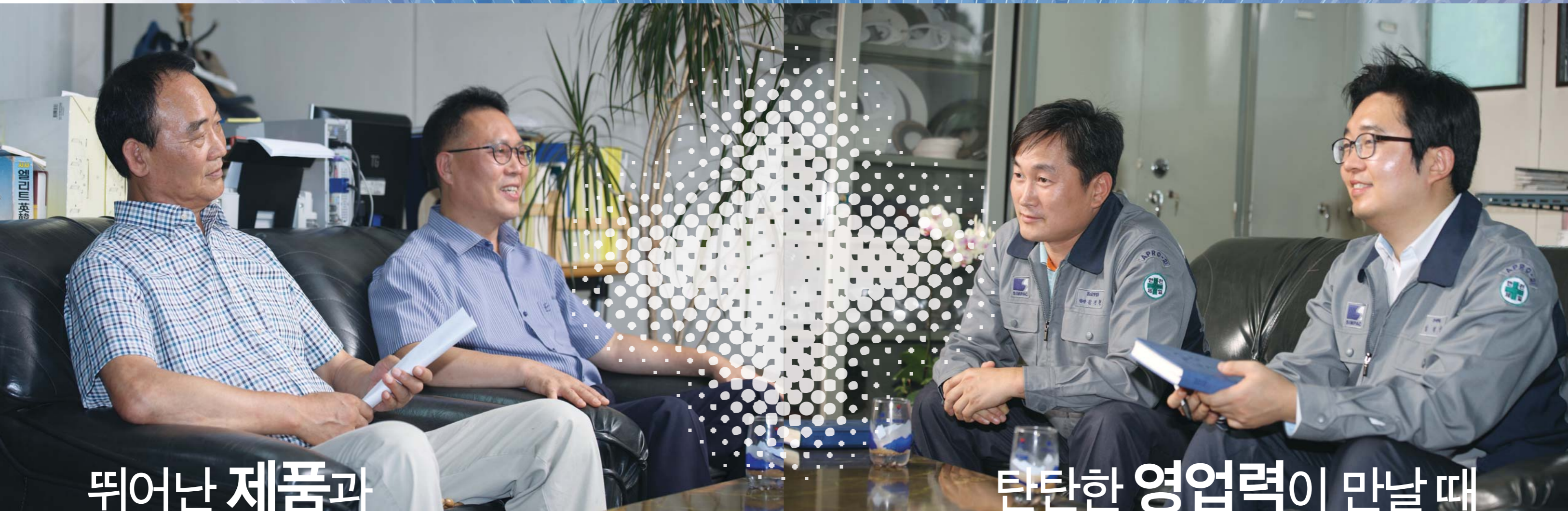
**김영문 주임** :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직장 동료, 선후배 간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진 공장 견학을 계기로 앞으로 두 회사도 꾸준히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품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죠. 더 나은 작업환경을 위해 SIMPAC메탈로이도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문 반장** : 저희도 SIMPAC메탈 작업 현장에서 분임조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 환경과 원가 절감을 위해 전기로 직원들 모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SIMPAC메탈로이에서 견학 왔는데 향후 기회가 되면 우리도 포항 현장을 견학했으면 합니다. 이전에도 협력을 계속해 왔지만 이번 견학을 계기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욱 원활한 교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SIMPAC메탈로이와 당진의 SIMPAC메탈. 두 회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 오늘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땀 흘리는 직원들이 있기에 회사는 희망의 돛대를 달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Best Partners -  
SIMPAC메탈로이와 엔아이테크(주)



# 뛰어난 제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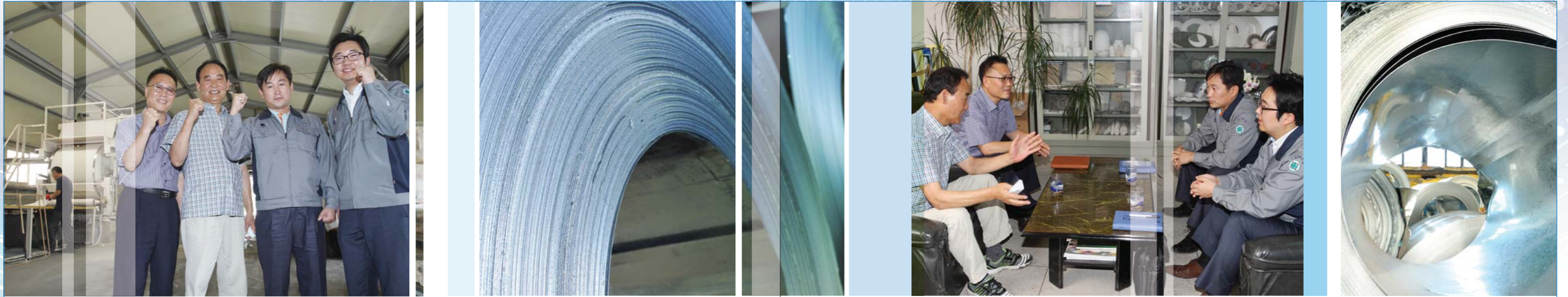
# 탄탄한 영업력이 만날 때

포도의 고장, 충북 영동으로 가는 길. 8월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탐스러운 과수가 많이 자라는 청정 지대, 영동군에는 SIMPAC메탈로이의 협력사인 신소재 친환경 기업 엔아이테크(주)가 자리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엔아이테크(주) 사무실에서 고복술 대표와 박은용 상무, 그리고 SIMPAC메탈로이의 R&D 영업팀 김진현 부장과 원료구매팀 임택인 사원이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 날, 영동에 도착하니 신기하게 답답는 느낌보다는 청량한 기운이 느껴진다. 엔아이테크(주)의 2층 사무실에 들어서니 고복술 대표와 박은용 상무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 준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에 위치한 엔아이테크(주)는 설립한 지 35년 된 신소재 전문 제조업체로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초고온 내화단열 소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직접 생산 및 가공하는 기업이다.

이날은 멀리 포항에서 SIMPAC메탈로이 김진현 부장과 임택인 사원이 엔아이테크(주)를 방문했다. 네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응접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엔아이테크(주) 박은용 상무가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하였다.

“우리 회사는 1985년부터 세라믹내화단열재 산업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열재라고 하면, 석면과 내화물(구워서 나오는 단열재)이 주종을 이룹니다. 내화물은 건축용과 산업용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산업용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때부터 다짐한 것이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산업용 단열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어있죠.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금속 광물(보통 세라믹)을 주원료로 한 친환경 단열재를 개발해냈고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IMPAC메탈로이 통해 영업력 확보하면서 발전하는 계기 마련**

엔아이테크주 영동군 본사에는 2층짜리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서 있다. 울창한 산림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에 자리해 있어 더없이 한적하고 조용하다. 더운 날,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시원한 커피와 환한 웃음으로 반기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살가움이 느껴진다. 엔아이테크주는 SIMPAC메탈로이의 전신인 한합산업 시절부터 거래를 시작해 10년 넘게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고복술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든다 해도 결국엔 사용자가 알고 써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SIMPAC메탈로이와 거래하면서 우리 회사가 영업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은용 상무는 “소재가 좋고 뛰어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규모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SIMPAC메탈로이가 바로 그러한 부분의 매개 역할을 해줘서 우리 회사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라고 덧붙였다. 고복술 대표는 이어서 “SIMPAC메탈로이의 도움으로 엔아이테크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SIMPAC메탈로이와 MOU 체결 통해 ‘시장 확대’라는 성과 얻어**

SIMPAC메탈로이와 엔아이테크주, 두 회사는 지난 2010년 MOU를 체결했다. 이후 엔아이테크주는 세라믹 Roll의 국산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현재 포스코 스테인레스 냉연공장 및 스테인레스 소둔공장에 들어가는 SIMPAC메탈로이의 세라믹 Roll 원료 디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김진현 부장은 “스테인레스 강관을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세라믹 디스크)를 엔아이테크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며 “엔아이테크주는 고품질의 세라믹 디스크를 개발해 생산하는 업체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영업력을 갖고 있고 SIMPAC메탈로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지요, 서로 좋은 원료와 영업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해외시장까지 받을 넓히기 위해 현재 두 회사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엔아이테크주는 SIMPAC메탈로이를 만나 ‘포스코’라는 메이저 철강사에 납품하게 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태국, 대만, 중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포스코는 일본에서 만든 원료를 수입해 쓰고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이를 국산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차에, 우리 제품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완성되면서 SIMPAC메탈로이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와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준 SIMPAC메탈로이에 항상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은용 상무는 또 “우리 국산 제품을 국내 기업에 확대 공급하고 나아가 더 많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세라믹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 갖춘 회사로 성장해 나가길**

임택인 사원은 “구매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난 4년 동안 엔아이테크주는 단가 인상을 하지 않고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품해 온 회사입니다.” 라면서 “무엇보다 납기일을 정확히 지켜준 것이 많은 신뢰를 받아 온 요인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현 부장은 “SIMPAC메탈로이도 예전에는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제품은 워낙 단가가 비싸고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초창기에 매우 힘들었지요. 지금은 엔아이테크주와 같이 뛰어난 국산 업체의 제품을 쓰고 있어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며 “앞으로도 엔아이테크주가 더욱 뛰어난 제품의 국산화에 집중하고 특히 고분자 물질인 세라믹 디스크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일본 제품을 훌쩍 뛰어 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고복술 대표는 “우리 제품을 쓰면서 어려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격의 없이 소통하는 가운데 지금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 회사 모두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며 SIMPAC메탈로이의 협력사로서 더 큰 신뢰와 노력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날의 만남을 끝맺었다.

SIMPAC메탈로이와 엔아이테크주, 두 회사는 서로가 가진 강점을 보완하면서 빛나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최고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SIMPAC메탈로이와 엔아이테크주는 오늘도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 발을 맞춰 달리다 우리 회사 콤비 파트너

## SIMPAC메탈 설비물류팀 설비반 - 최기훈, 장사의 사원

한 여름 더위가 절정을 이룬 7월의 마지막 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SIMPAC메탈 당진공장의 오후 1시,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공장 사무실과 현장으로 돌아가 외부는 더없이 한적하다. 사옥 1층 로비로 설비물류팀 설비반 최기훈, 장사의 사원이 들어선다. 긴장한 듯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 두 사람. 시원한 주스를 마시며 이들의 유쾌하고도 속깊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손발이 **척척**  
호흡도 **척척**

설비물류팀 설비반에서 함께 맡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최기훈 : SIMPAC메탈 내의 설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장 설비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진공장의 현장 설비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4명인데 저희 두 사람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사원과 같이 호흡을 맞춘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장사익 : 전반적인 공장 설비에 대해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하며 일하는 편입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좋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결이 있는지요?

장사익 :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지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기에 신중하게 작업하면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협소한 작업 공간이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적절 알고 보조를 맞춰주니, 혼자 일할 때보다 편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기훈 : 연배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 경험이 풍부한 장사의 사원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그때마다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데, 제 짧은 경력으로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세심히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음도, 호흡도 잘 맞으니 작업 능률이 절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작업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장사익 : 가끔씩 생산 라인이 기계 고장으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은 곧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척척 호흡을 맞춰서 복구하고 마침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혼자 했다면 시간이 더 걸리고 부담감도 컸을 텐데 파트너가 있으니 더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최기훈 : 전기로 내의 작업 중, 전국 홀더 교체작업이 있는데 이는 최소 3명이 달라붙어 작업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교체하는데 4시간 정도 걸렸었죠. 꾸준히 작업하다 보니 숙달이 되면서 시간이 단축되어 지금은 1시간 내로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더운 여름에는 전기 용량을 많이 써서 홀더 교체작업을 빈번하게 하는 편인데 점점 작업 시간이 단축되면서 일하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작업하면서 의견이 안 맞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최기훈 :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차분히 서로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어떤 일이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또 일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함께 하며 훌훌 털어버리죠.

장사익 : 아직까지 크게 안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은 둘 다 성격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기훈 : 장사의 사원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비 분야는 끊임없이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쌓아야 합니다. 그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네요. 자기 계발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SIMPAC인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익 :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함께 마음을 맞춰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마인드와 다짐으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늘 든든한 최기훈 사원에게 지면을 빌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차게 달려봅시다! 화이팅!



삼행시로 전하는 Message for you



From 최기훈

- 장: 장기적으로, 우리의 일을 위해
- 사: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 익: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게 지내봅시다!

- 최: 최 기사! 더운 여름이네요
- 기: 기운 내고
- 훈: 훈훈한 마음으로 일합시다!



From 장사익





# 꿈을 향해 달리다

## 훌륭한 기업의 조건 : 실행력

실행력은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행력의 중요성과 이를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초우량 기업의 첫 번째 조건

경영 서적인 '초우량 기업의 조건'의 저자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먼은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철저한 실행'을 들었다. 그들에 따르면 초우량 기업의 실행방법은 다르다. 35명으로 이뤄진 팀이 1년 동안 5백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식의 것이 아니다. 소수 정예인력으로 팀을 구성하고, 5일 후에는 현장 부서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실행력이다.

뿐만 아니다.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 콜린스는 단계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실행력이 가지는 파워에 대해 역설했다. '실행에 집중하라'의 저자, 래리 보시디도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업에 우수한 성과를 가져오는 핵심 요소임을 지적했다.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학장인 니틴 노리아는 지난 10년간 160여 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며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전략'과 함께 '실행력'을 꼽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발맞춘 기업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그러나 실행력이 부족한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전략의 수립보다 집행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은 높은 성과를 실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기업의 실행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늘 결정이나 실행을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기업들은 경영 컨설턴트에게 수십억 달러를 뿌리며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비싼 값을 치르고 구한 조언이 그대로 실행되는 일은 드물다. 어느 컨설턴트는 큰 은행에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과거 네 차례의 컨설팅 결과를 슬라이드 한 장에 담았다. 지난 6년간 그 은행이 각기 다른 네 군데의 컨설팅 회사에게 의뢰한 연구결과였다. 재미있는 것은 네 차례의 연구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모든 컨설팅 회사가 살펴본 자료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컨설턴트가 자리에 모인 간부들에게 물었다. "똑같은 답을 다섯 번째 듣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기업의 실행력을 꼬집은 이 컨설턴트는 결국 일을 따냈다.

##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를 대부분 전략이나 시스템에서 찾곤 한다. 하지만 비전과 전략의 차이보다 실행력의 차이가 기업들의 성과에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경영 환경 예측과 전략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전략적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역량이다.



미국관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들이 수립한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만이 기업의 전략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심지어 이행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관리자들은 기획에 초점을 맞춰 교육받기 때문에 전략수립 능력에 비해 전략실행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스포츠의 기본은 체력이다. 평소에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 두어야 한다. 기업에게 있어 체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실행력이다. 기업의 실행력은 체력과 같아서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동안 체질화된 조직 분위기나 기업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비롯한 리더가 인력과 전략, 운영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강한 실행력을 가진 기업들**

르노 닷산 얼라이언스의 CEO인 카를로스 곤은 '훌륭한 계획은 필요 없다. 계획이 5%, 실행이 95%'라고 말한다. 그는 자세한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목표를 향해 걸음을 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훌륭한 계획의 수립만큼이나 실행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카를로스 곤은 닷산에 오자마자 우량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감축했다. 그는 강도 높은 자산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밀어 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카를로스 곤이 오기 전에도 닷산 내부에서 자산을 매각할 계획을 여러 번 세웠다는 점이다. 곤 사장의 전임자들 모두 똑같은 처방전을 갖고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한 명은 실행하여 결과를 만들어냈고,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 한 아무런 성과로도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전략 수립보다는 그 집행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실제로 그들의 전략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 전략과 목표가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델이 최초 통신 판매를 통해 PC를 팔기 시작했을 때에는 아무도 이 조그만 회사가 IBM이나 컴팩, HP와 같은 대기업들과 나란히 서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델의 사업 모델은 철저한 직접 판매이다. 델의 전략은 단 한 마디, "직접 팔아라"이다. 통신 판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e-비즈에 이르기까지 델의 사업은 모두 이에 기반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전략이지만 누구도 델 만큼 실행하지 못했다.

가정용품 제조업체 P&G는 실행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걸맞게 조직의 규모가 작고 단순하다. 실행을 우선시 하는 조직의 분위기를 '1페이지 메모'라는 전통에서도 알 수 있다. P&G의 리처드 듀포리 전 사장은 재임 당시 타자로 타이핑을 했을 때 1장이 넘는 메모를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간결함을 추구하는 P&G는 지금까지도 사실과 의견이 명확히 구분된 간단한 메모가 의사 결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는 없다**

장시간 지루하게 논의했지만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는 회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내 일인 것처럼 나서지 않는 회의, 해야 할 일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회의를 흔히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서는 실행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실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어떤 행동을,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의의 말미에 CEO 자신이 직접 나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를 명확히 정리한다고 하는 GE의 방식은 학습의 가치가 충분하다.

누구나 변화를 말한다. 혁신과 재발견, 변혁, 창조적 사고, 도전적 목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도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잘 짜여진 전략도 효율적인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조직의 역량은 개인 역량의 총합, 개인의 실행력을 높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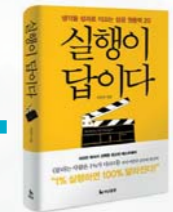
조직은 공동목표를 가진 개인의 집합이고, 조직의 역량은 개인 역량의 총합이다. 조직의 실행력도 결국은 개인 차원의 실행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먼저 자신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부분이다.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자세가 달라진다. 이로써 조직의 성과와 이익이 개인의 그것과 일치할수록 더욱 헌신하고 몰입하게 된다. 그러면 실행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 업무를 명확하게 하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여기에는 목표, 마감 기한, 평가 기준, 중간 점검 일정,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범위, 나에게 대한 회사와 상사의 기대치도 포함된다.

· 자율적으로 일하자 |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직접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실행력이 높아진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자.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인정하도록 하자. 뭔가 해냈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만의 축하행사를 스스로 갖는 것도 좋다.

· 시작하고 실행에 옮기자 | 아무도 하지고 말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시들해진다.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창조하고 설득하고 착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어진다. 결심을 사흘 이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무엇인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결심한 다음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실행인 것이다.



**Book for You**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지음

실행력은 곧 의지이며 의지는 타고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결심한지 3일 만에 지레 포기하고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 자책한다. 하지만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얻어질 수 있는 일종의 스킬이다. 실행력이 부족한 것은 아직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뭔가 다른 결심을 하고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실행력은 '결심-실천-유지'라는 3단계를 포함하며 탁월한 실천가가 되려면 이 3단계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진 스킬과 노하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개인이든 조직이든 실행력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 되니 말이다.



# 열정으로 달리다

우리 회사 자기개발 왕  
"어학과 운동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이 천근만근이라 퇴근 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기 보다 TV를 보거나 웹 서핑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일이 많을 때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이 반복된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 다르게 짹짹 틈을 내어 자신만의 관심사나 특별한 재능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달리는 SIMPAC인 2명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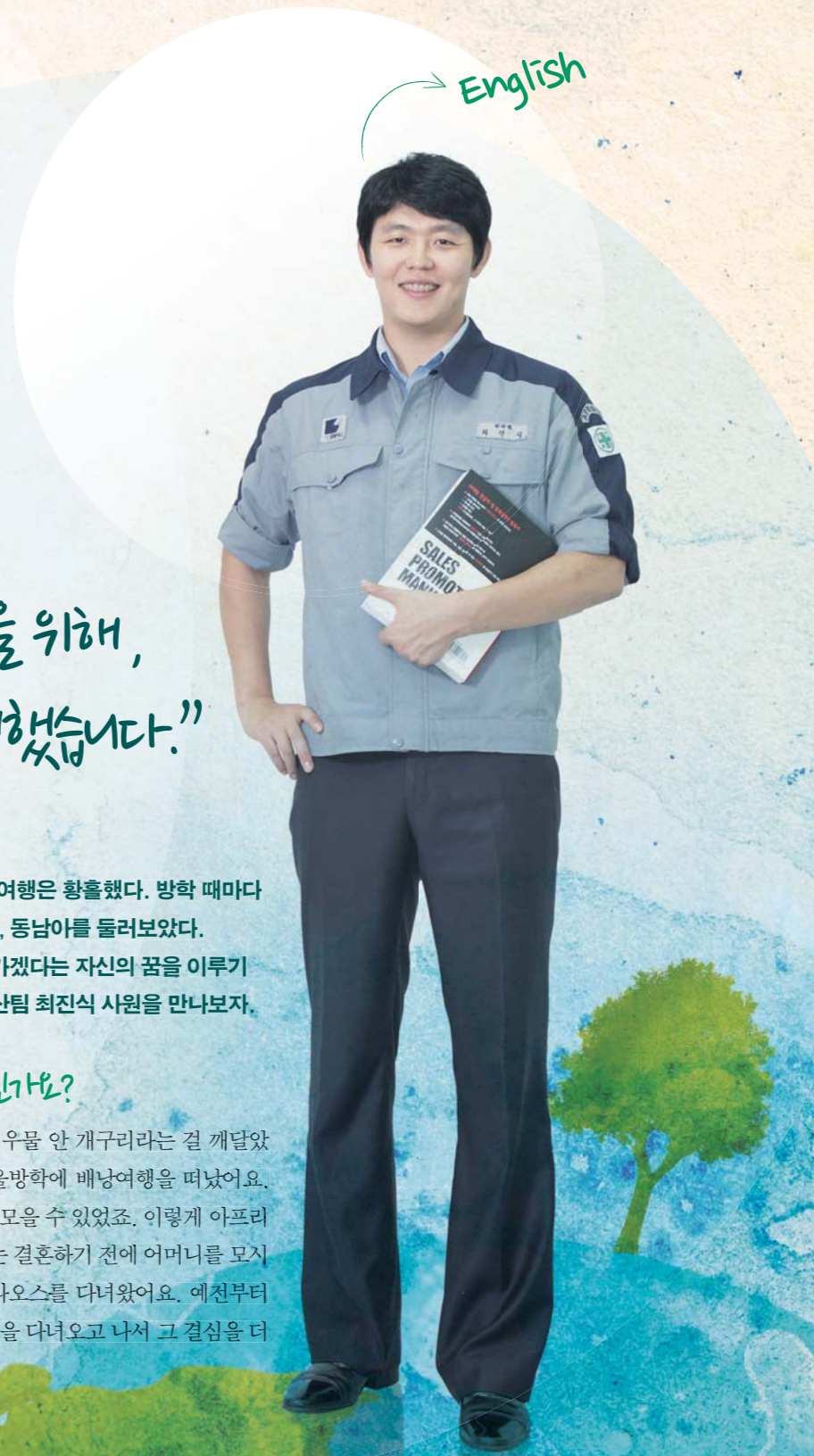


“17세기여행의 꿈을 위해,  
영어공부를 택했습니다.”

2005년 처음으로 배낭여행에 도전했다. 두 달간의 인도여행은 황홀했다.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경비를 모았다.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를 둘러보았다. 여행을 하다 보니 영어가 절실했다. 언젠가 세계여행을 가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SIMPAC의 어학왕, 전산팀 최진식 사원을 만나보자.

영어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05년에 인도로 두 달 간 배낭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여름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울방학에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다행히 학비는 집에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모을 수 있었죠. 이렇게 아프리카, 중동, 터키, 동남아 등 많은 곳을 다녀왔어요. 작년에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야겠다 싶어서 싱가포르, 올해 6월에는 라오스를 다녀왔어요. 예전부터 영어공부를 심도 깊게 해 봐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 영어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무엇부터 시작했나요?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료를 먼저 찾아봤어요. 영어회화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했죠. 매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학원에서 회화수업을 받고 출근합니다.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6시 30분에 학원수업을 듣고 8시쯤 출근합니다. 출근길 전철에서도 미드를 보거나 학원 교재를 보며 복습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평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근 후 술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네요. 영어공부에 건강관리까지, 일석이조입니다.

### 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은 어떤가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회사에서 하는 영어회화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영어실력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영어로 대화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저를 도와주는 스튜어트 선생님이나 구매팀 강유리 대리님을 포함한 저희 반 사람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 영어 외에 앞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언어가 있나요?

일단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그 후에 아랍어를 한 번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중동을 여행할 때 접한 아랍어 글씨가 참 신기했거든요. 그들의 문화도 좀 더 공부해 보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출퇴근을 할 때 예전엔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매일 EBS 방송을 청취합니다.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과 딱 맞춰 초급 영어를 7:20~7:40am에, 중급 영어를 7:40~8:00am에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이나 교재는 유료로 판매하니 필요하면 구매해서 봐도 좋을 듯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세계여행입니다. 은퇴한 다음, 미래의 아내와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 때까지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보려고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어학왕'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꾸준히 하라는 노력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열정 없이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게오르크 빌헬름의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erc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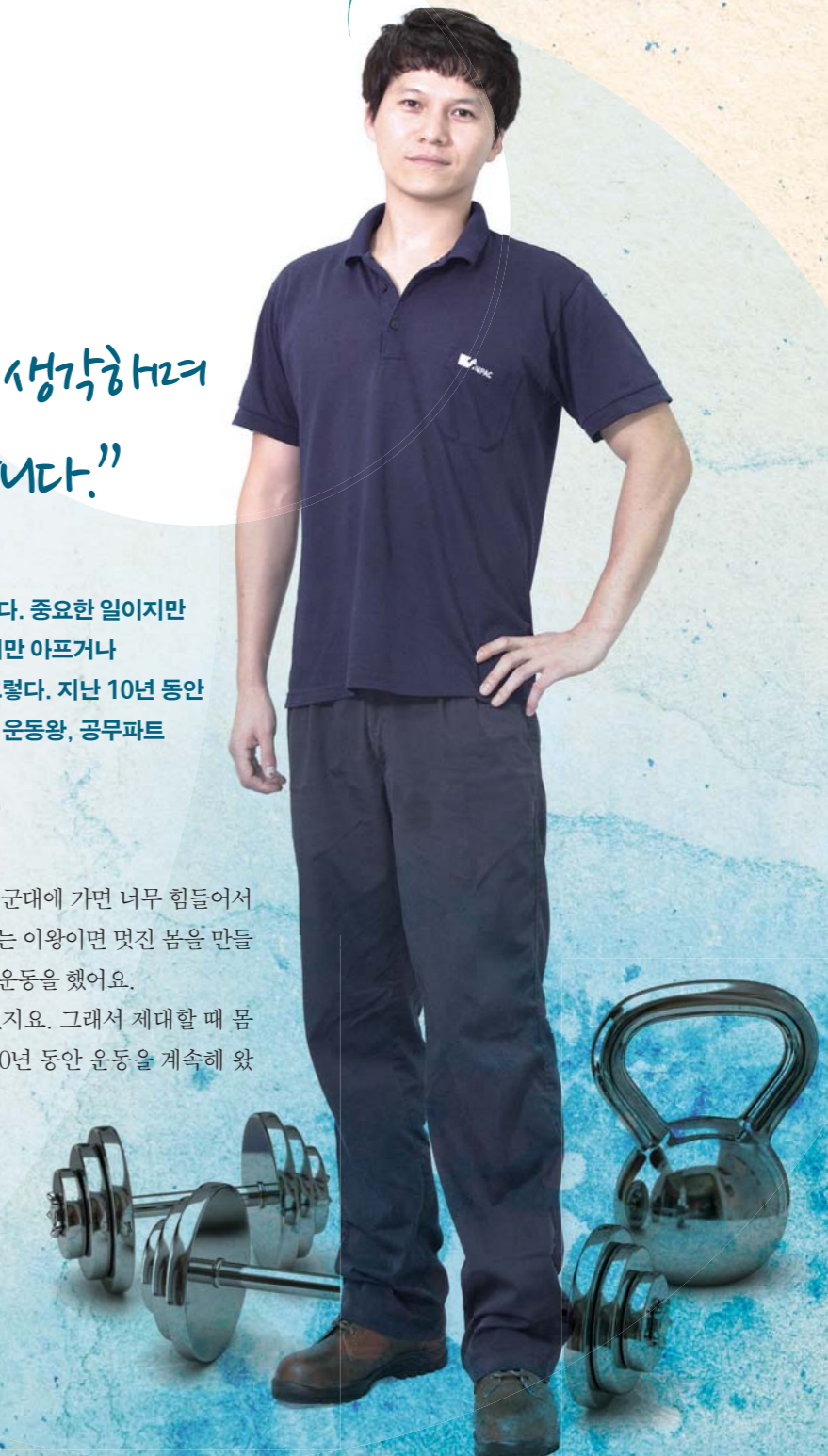


##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며 꾸준히 운동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스스로 체력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일이지만 미루기 쉽기 때문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지만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운동으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해 온 SIMPAC의 운동왕, 공무파트 김수용 사원을 만나보자

### 처음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21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체력이 좋아서 펄펄 날 때죠. 군대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체력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멋진 몸을 만들어서 제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을 줄이고 운동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고, 네 시간 정도 운동에 투자했지요. 그래서 제대할 때 몸이 입대 전 보다 좋아졌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주로 무슨 운동을 하나요?

회사의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이용합니다. 종류별로 다 하지만 특별히 팔굽혀 펴기를 많이 하지요. 팔굽혀 펴기는 전신운동이라서 몸 근육이 전체적으로 발달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는 하루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 했습니다. 연속으로 하긴 힘드니까 100개 정도 하고 나서 다리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100개 정도 합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300개 정도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한 참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400개씩 했는데, 요즘에는 200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근육이 빨리 만들어지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바뀌는 걸 느낍니다. 한 번만 제대로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잠깐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금방 생기지요. 이렇게 처음 만들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근육이 잘 생기는 체질이 아닌가봐, 하면서 몇 달 하다가 그만두는 거죠. 하지만 이 기간만 지나면 온 몸의 근육을 잘 길들일 수 있는 체질로 변합니다.

### 근육들이 운동량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3월에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화분을 옮기다가 어깨 근육을 조금 다쳤습니다. 다행히 자연 회복이 되는 정도였지만 무리하지 않으려 4개월 정도 운동을 쉬었어요. 다시 운동을 시작한지는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운동이 재할에도 도움이 되니까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더 아프더라고요. 근육이 좋아지면 다치는 걸 방지해주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운동이 힘들다거나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면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면 무척 속상합니다. 아직 젊은데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이 찌면 혈압도 오르고 건강에도 안 좋을 테니, 미래를 생각해서 체력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다른 SIMPAC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운동을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면 힘들고 몸이 지쳐서 재미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생각하면 몸이 더 늘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땀 흘리고 샤워할 때의 개운함,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자세가 고쳐지면서 어깨도 펴지고 자신감도 생기며 대인관계가 좋아지더군요. 덕분에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SIMPAC인 여러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재미보다 자기만족을 위해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TH US

## 힘찬함성과 함께 하나되어 앞으로 GO!



### SIMPAC메탈로이 '직원 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난 8월 22일, 평소 교대근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두 모이는 것이 어려웠던 SIMPAC메탈로이 가족들이 '직원 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뜻 깊은 날을 맞아 하늘도 한마당 잔치를 축하해주는지 행사장인 포항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변에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며 여름 더위를 식혀주었다.

12시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이 하나 둘 가족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모여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행사장은 금세 시끌벅적 해졌다. 본격적인 행사가 막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맛있는 음식과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울림 한마당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듯하였다. 행사 전, 매달 직원들의 급여에서 십시일반 끝전을 모아 후원하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 풍물단 '룰'의 신명 나는 공연이 있었다. 항상 SIMPAC메탈로이 행사가 있으면 자신들의 가락을 꼭 들려주고 싶었던 아이들이 몇 주 전부터 이송대 사원과 함께 방과 후 틈틈이 준비한 시간이었다.

#### 남녀노소 하나되어 신나게 뛰었던 경기

신명 나는 풍물공연으로 흥을 돋운 뒤 송효석 대표이사의 힘찬 개회선언과 최진식 회장의 인사말, 직원대표 및 자녀의 결연한 선서로 어울림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화합', '협동', '인화' 세 팀으로 나뉘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하며, 힘을 합쳐 경기에 임했다. 서로 어깨를 걸고 발 맞추어 달리는 '2인 3각', 힘과 전략이 모두 필요한 '전략 줄다리기', 아이들을 위한 '터널달리기'와 '파도타기', 웃음이 터지는 '단체줄넘기', 요리조리 피해야 사는 '피구', 호흡이 중요한 '협동 배구', '단체 팔씨름'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터널달리기'와 '파도타기' 경기는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 소리로 어른들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진행된 '단체줄넘기'는 직원과 가족, 최진식 회장 이하 임원들 모두 참여하여 구렁에 맞춰 줄을 넘으며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단체 팔씨름'까지 마치며 어울림 한마당의 경기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어지는 여흥행사에서 직원과 그 가족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였고, 경기 결과에 따른 각 팀 별 시상과 경품 추첨도 진행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송효석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SIMPAC메탈로이는 직원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 맞추어 함께 노력해나가는 메시지를 전했다.

01. 식전 풍물공연



02. 개회선언



축사 및 인사말씀



직원 및 자녀의 선서

03. 자녀와 함께 2인 3각 달리기



작전회의 중



04. 전략줄다리기



직원 자녀와 함께

05. 피구



06. 협동배구



07. 파도타기



08. 팔씨름왕



09. 터널 달리기



11. 단체사진



10. 단체줄넘기



이날의 참여소감  
- SIMPAC 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무더운 8월 여름 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모두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고, 웃으며 오랜만에 업무의 짐을 잠시 내려 놓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이날 재충전한 긍정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발전하는 SIMPAC메탈로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SIMPAC메탈로이 화이팅!!!



신나게 응원하고  
함께 먹고 즐기니  
어찌 즐겁지 않을랴!



### SIMPAC 생산팀 직원들의 야구장 나들이

직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직장인들의 퇴근 모습은 비슷할 것이다. 퇴근 후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친구나 동료와 저녁 약속을 잡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6월 20일, SIMPAC인들의 저녁 풍경은 조금 달랐다. SIMPAC 생산팀 직원 100여 명은 퇴근 후 모두 한 장소로 향했다. 이날 인천 인천 문학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로 한 것. 회사에서 직원들의 문화 생활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 경기장으로 향하는 SIMPAC인들의 발걸음이 어느 때 보다 가볍다. 한낮의 더위가 물러간 후 불어오는 시원한 저녁 바람에 모두의 표정도 상쾌하다. 이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예선 경기가 열렸다.



치킨과 맥주, 야구와 여름 저녁,  
함께 하는 시간 속에 꽃피는 동료애

속속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SIMPAC인들은 미리 예약되어 있는 자리, '외야 파티택'에 앉았다. 이곳은 6~8명이 둘러 앉아 간식을 먹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로,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모두 편안하게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특별히 좋은 자리를 예약해 둔 것. 각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맥주, 음료 등이 놓여 있다. SIMPAC인들은 삼삼오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과연 오늘 어느 팀이 이길지 궁금해하면서 경기를 기다린다.

김종식 계장은 "동료들과 단체로 경기장에 와서 함께 응원하고 즐기는 이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것 같습니다."라면서 "오늘 혹시나 이승엽이 홈런을 쳐서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또 그 볼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한 행운이 제게 오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옆에 있던 김봉기 계장은 "야구경기는 거의 TV로만 봐 왔는데 이렇게 경기장에 온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야외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직접 응원할 수 있어 더없이 좋네요."라고 소감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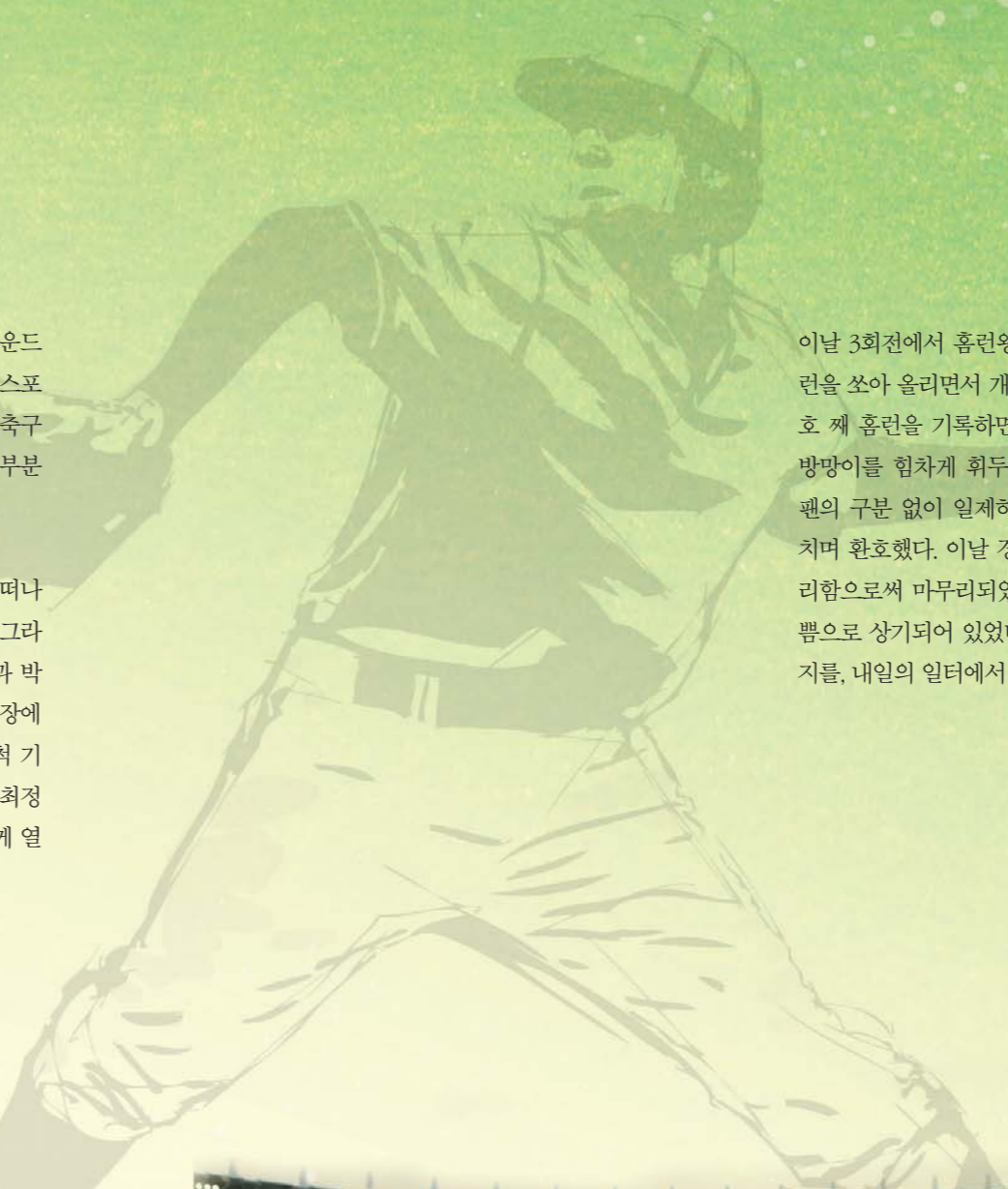




### 시종일관 긴장감과 재미 주는 야구, 승부 떠나 의미 있는 시간

오후 6시 30분이 되자 경기가 시작되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라운드를 향한다. 하명대 사원은 "야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어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라고 말한다. "야구는 시종일관 긴장감과 재미를 줍니다. 축구는 골이 들어가지 않고 경기가 안 풀리면 지루해지는데, 야구는 대부분 승부가 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계속되어서 즐겨 봅니다."

SIMPAC인들은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승부를 떠나서 이 시간을 재미있게 즐기겠다고 말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그라운드에 시선을 고정한 채, 타자가 친 공이 멀리 나갈때 마다 함성과 박수를 보낸다. 김상현 사원은 "야구를 무척 좋아하지만 그동안 야구장에 좀처럼 가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야구 경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라며 "아무래도 홈팀인 SK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정 선수를 응원하는데 경기를 보는 제가 괜히 떨리네요,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이날 3회전에서 홈런왕 이승엽(삼성)이 좌측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3점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개인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수립했다. 개인 통산 352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이승엽이 방망이를 힘차게 휘두르면서 홈런을 날리자, 문학구장 곳곳에서 홈·원정 팬의 구분 없이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SIMPAC인들도 힘찬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날 경기는 이승엽의 홈런에 힘입어 삼성이 SK를 5:2로 승리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SIMPAC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이들은 야구 관람으로 충전된 오늘의 사기와 에너지를, 내일의 일터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소진할 것이다.







여름 저녁,  
 웃음 가득한  
 당지인으로 모여라!

### SIMPAC메탈 제2회 가든파티

지난 7월 2일 저녁 6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금철 공장을 가진 SIMPAC메탈에서 제2회 가든파티가 열렸다. 가든파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년처럼 사무동 앞 정원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SIMPAC인들이 함께 잔을 맞대는 것이 원래의 기획의도였지만, 이월계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장마로 인해 대신 사내의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함께하기 위해 출발한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고 최진식 회장의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경제사절단 동행 소식과 앞으로 SIMPAC메탈이 나아갈 희망찬 미래에 관한 SIMPAC메탈 서연석 대표이사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한 상 푸짐하게 차려진 보쌈과 닭강정, 여기에 시원한 맥주와 잔을 부딪힐 동료들이 있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군다나 행사 중간에는 발랄한 여직원들의 무반주 노래와 몸을 아끼지 않는 댄스가 있었으니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이렇게 모두가 한 곳에 어우러져 시간가는 줄 모르고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다음을 기억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즐거운 이날의 기억을 남겨놓기 위해 사무동 로비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며 제2회 가든파티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러~



서울에서 오는 SIMPAC인, 당지에서 기다리는 SIMPAC인. 그들이 만나며 제2회 가든파티가 시작되었다.





두집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오가는 잔 속에 싹트는 동문애~



흥겨운 파티의 마무리~



건배 제의를 힘차게~



주머니 받거나, 맥주 잔을 부딪히며 그간  
펼쳤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카페테리아에 가득 모인  
SIMPAC인들의 열기로 행사의 날씨는 매우 맑음이었다.



젊은 SIMPAC인들의 발랄한 장기자랑을 끝으로  
웃음 가득한 파티가 마무리되었다.

# 당신을 칭찬합니다



##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팀 박기원 사원이 품질팀 문경근 과장에게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렵고 꺼려지는 일들에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면 용기 북돋아 주시고 작은 것도 칭찬해주시는 점이 늘 감사하네요. 구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겨울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더운 여름에는 저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IMTOS 전시회에 과장님과 단 둘이 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까워진 계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나 본인 차를 사라고 하시던 지진땀 뺀 기억도 있네요^^

##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팀 김승국 사원이 정제린 대리에게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덧 제가 입사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리님 업무를 이어 받아 일해 온 저에게 어려울 때면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고, 밥을 사며 격려해 주시는 등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리님과 제가 차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함께 시승도 해보고 보험 등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때가 되면 방향제도 제 것까지 사주시고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받을 때엔 잘 아는 단골집을 소개해주셔서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SIMPAC메탈로이 1공장

집진반 정진교 사원이 허균 주임에게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덥고 지칠 때면 시원한 음료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동료와 후배들을 감싸 안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후배가 없는 막내지만 늘 주임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배, 저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과 육아에 지쳐 얼굴이 찡그려 질 때면 생각 나는 선배님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부서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 자주 잔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술자리를 가지면 열근하게 마시곤 합니다. 아들 같은 저에게도 친 구갈이 대해 주셔서 아무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공무원 김인섭 반장이 우태보 주임에게

칭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이 넉넉하여 베풀기를 좋아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현장에서 늘 메모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철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동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매력적인 면모를 갖췄습니다. 때로는 싸울 듯이 큰소리로 농담도 하지만 그 속에는 진한 동료애가 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즐겁네요. 나이 50세 지천명(知天命), 이즈음 등산길 보다는 하산길이 편할 나이에 나이치는 좀 나지만 내 삶 속에 길동무로 초대하고 싶은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우리의 공통점은 운동을 좋아하고 승부근성이 있다는 것! 산을 좋아하는 우태보 주임과 함께 등산하며 동동주 한 시발에 많은 인생을 담고 싶습니다.



SIMPAC메탈 워크샵

#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짧지만 아주 특별했던 시간

##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각기 다른 모습의 워크샵

올해 SIMPAC메탈의 춘계 워크샵은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SIMPAC메탈 춘계 야유회가 임직원 전원이 2개조로 나뉘어 참석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되는 행사였다면, 올 봄에는 이와 반대로 각자 소속된 조직의 화합을 도모코자 조/반/팀 별로 워크샵이 진행된 것이다.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이번 워크샵은 조/반/팀 별로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여 1일차 저녁에 이에 대해 토론하고, 2일차 오전에는 자율적인 계획 아래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1박 2일의 시간 동안 조직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 모든 세부 일정은 조직 별로 자유롭게 짜도록 하였는데 이는 회사가 정해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SIMPAC인 스스로 만들어 가는 워크샵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때문에 이번에 다녀 온 7팀 모두 그 팀에 의한, 그 팀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무가 끝나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피곤한 상태였던 것, 그리고 숙소가 변산, 홍천, 단양에 위치해 있었기에 회사에서 거리가 멀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다음 SIMPAC메탈의 워크샵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더욱 편안하고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 전기로 1팀 (A조)

일자 : 5월 2~3일  
숙소 : 변산 대명리조트  
관광 : 채석강 보트 탑승, 내소사, 대천해수욕장

 바쁜 일정 중에 다녀왔지만 나누었던 많은 대화를 통해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토론에 적극 참가한 조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대근무의 특성상 다른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워크샵을 통해 타 부서 팀원과 대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 전기로 2팀 (B조)

일자 : 5월 7~8일  
숙소 : 변산 대명리조트  
관광 : 새만금로, 비응만 해안가 및 등대, 삼교천



모두들 단합된 모습으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무척 좋았습니다.

### 전기로 3팀 (C조)

일자: 6월 21~22일  
숙소: 흥천 비발디파크  
관광: 가평 수상보트 및 수상스키



### 전기로 4팀 (D조)

일자: 5월 17~18일  
숙소: 흥천 비발디파크  
관광: 온양온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료들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경영지원팀

일자: 5월 24-25일  
숙소: 변산 대명리조트  
관광: 새만금로 패러글라이딩, 부안댐

언제나 행사를 진행하면 뒤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경영지원팀 입장에서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로 많은 걸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 설비 1팀

일자: 5월 24-25일  
숙소: 단양 대명리조트  
관광: 다누리 아쿠아리움, 고수동굴

소규모로 다녀왔기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업무로 지친 심신에 활기를 불어 넣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함께 일정을 짜며 대화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설비 2팀

일자: 5월 31일~6월 1일  
숙소: 흥천 비발디파크  
관광: 경강역 레일바이크 및 보트, 실록사

우리들만의 워크숍 일정을 계획하면서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라 일정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SIMPAC NEWS

## SIMPAC홀딩스



### 최진식 회장,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민 방문' 대규모 경제사절단에 동행

□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이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에 동행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초청된 재계 인사는 총 71명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의 대기업 총수 외에도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 최병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패션그룹형지 회장), 백남홍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울지전기 대표) 등 중소·중견기업인 33명이 포함되었다.

경제사절단은 6월 28일 베이징에서 대한상의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한·중 투자 현황과 과제에 대해, 중국 측은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환경 에너지 분야의 협력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IMPAC메탈로이



### 직원 화합 족구대회

□ 단체경기인 족구를 통해 직원들 간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및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직장생활의 활력을 돋우고자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직원 화합 족구대회'를 1, 2공장 별로 개최하였다. 작년 경기 때 각 팀의 전력을 탐색한 올해는 다소 이른 더위에도 치열하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등 운동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를 마치고 송효석 대표이사는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 제14회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

□ 지난 5월 25일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원에서 '정품철강재 사용을 위한'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철강협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송효석 대표이사는 시총 및 시상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마라톤에도 참여하였다. 이날 모인 직원 및 그 가족들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 그동안의 업무 등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뛰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음식 싱겁게 먹기 운동

□ SIMPAC메탈로이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음식 싱겁게 먹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난 5월 27일 '싱겁게 먹기 운동' 부스를 1주일간 설치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무심코 먹는 음식물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에 대해 알게 되어 많이 놀라며,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하루가 되었고, 미각 테스트를 통해 평소에 얼마나 짠 음식에 길들여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구내 식당에 국물의 염도를 알 수 있게 '염도 표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를 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싱겁게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 중이다.

## SIMPAC메탈



### 소방훈련 실시

□ 지난 8월 28일 당진소방서 주관 아래 2013년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훈련은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중점사항은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통한 진압능력배양, 실제 훈련으로 소화기구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이다.

## 다른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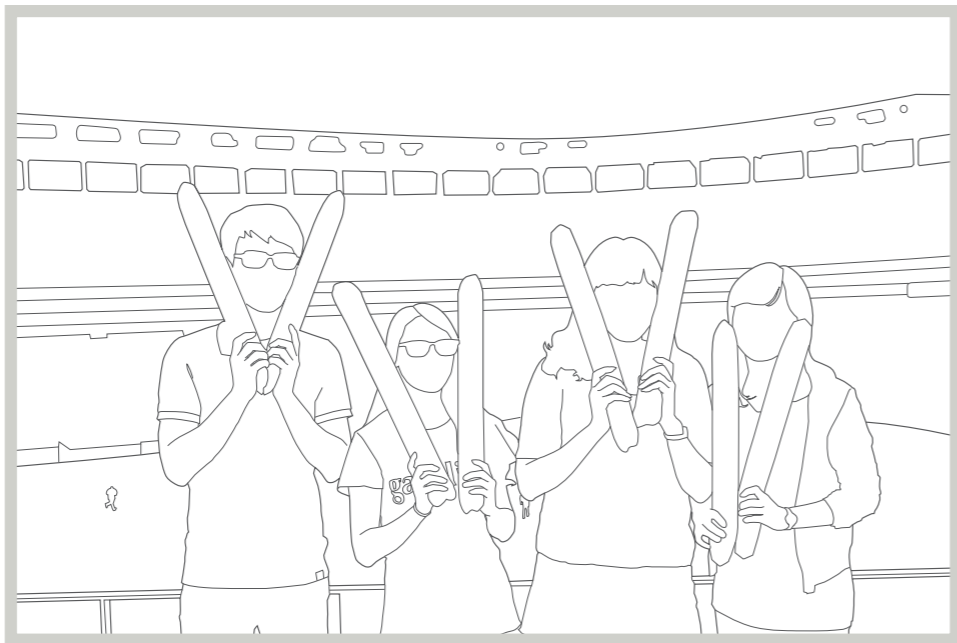


###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 생산팀 공무파트 · 이성은, 김수용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D조 · 이시우 | 가공반 · 오준호  
SIMPAC메탈 전기로 C조 · 황해현

왼쪽 사진과 다른 점이 오른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왼쪽 답지에 체크하여 9월 30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 <참가자 정보>

소속 : .....

성명 : .....

## 우리들의 게시판

기쁨은 나누면 두 배!  
SIMPAC인의 행복한 소식을 전합니다.



### 축하합니다!

SIMPAC 인사총무팀 권성안 사원

지난 8월 1일 SIMPAC 인사총무팀 권성안 사원의 주니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를 닮아 건강한 권태은 공주님. 지금처럼 무럭무럭,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 세계 최고 품질

고부가가치 페로망간(FeMn)을 생산하다!



(주) SIMPAC 메탈



**(주)SIMPAC 메탈의 설립으로 생산능력, 제품구성 UP!  
글로벌 종합합금철 전문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중저탄소 페로망간은 탄소함량이 적어, 가벼우면서 높은 강도를 가진 철강제품 생산에 사용되며 차세대 산업인 초경량 자동차용 강판 및 선박과 같은 고급강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